

알아샤, 사우디 아라비아

알아샤의 수공예품과 전통문화 산업



알아샤의 수공예품과 전통문화 산업은 지역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도시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문화 유산 중 하나이고, 부모세대에서 자녀세대로 세대 간에 지속적으로 전승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인간과 자연 환경의 상호작용, 또는 생산품을 사용하거나 교환함으로써 인간의 필요에 적응해온 결과이다.

뿐만 아니라, 한 편으로는 알아샤에 이어져 내려온 문명의 계승과 함께, 다른 편으로는 아라비아 만, 신드 Sindh, 그리고 인도와 근접하여 중요한 무역 거점이

되는 전략적 위치로 인해 경험의 교류가 일어나면서, 알아샤에는 목공예, 대장장이, 손자수, 도예, 직조, 금세공과 같은 수공예와 전통문화산업에 있어서 우수성과 다양성이 생겨났다.

사우디왕국정부는 문화유산과 전통을 보존하고 그 지속성을 유지하는 일과, 수공예와 민속예술 분야의 창의성을 지원하고 증진시키는 일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정부의 모든 관련 부서들을 이끌어 왔다.

이러한 관심의 결과인 동시에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의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알아샤 지방정부는 "장인 시장(Artisan's Market)" 프로젝트를 수립하였다. 이것은 지역의 민속을 지원하고 보존하기 위해 수공예의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장인들을 한 데 모으고, 또한 문화 유산 및 문화 상품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중요한 관광지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 프로젝트는 동부 지방 주지사인 사우드 빈 나예프 빈 압둘라지즈 알 사우드 (Saud bin Nayef bin Abdulaziz Al Saud) 왕자와 알아샤 주지사인 바드르 빈 무하마드 빈 잘아위 알 사우드(Badr bin Muhammad bin Jalawi Al Saud)의 후원으로 2020년 3월 4일(그레고리력 날짜에 해당)에 시작되었다.



장인 시장 건물은 지역의 전통 색상으로 꾸며졌으며, 그 건축 요소와 표현 형식은 알 올드 아샤(Al-old Ahsa) 지역의 건축 요소들과 마켓 설립 정신의 역사적, 문화적 깊이를 반영하고 있다.

이 장인 시장은 알아샤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인 호푸프(Hofuf)에 자리잡고 있다. 시장의 규모는 면적이 12,000m²이며, 98개의 공예품 상점들, 지원 서비스 시설, 그리고 축하 행사와 이벤트 및 다양한 문화 활동과 민속 행사를 할 수 있는 광장을 포함하고 있다.

알아샤의 가장 대표적인 축제는 수공예 및 민속예술 창작 축제인데, 매년 40개 이상의 민속 공예품과 12개 이상의 민속 예술을 유치하고 있다. 게다가 이 축제에서는 장인 시장의 일부를 할애하여 숙련된 장인의 수공예 교육을 위한 특별 아카데미가 개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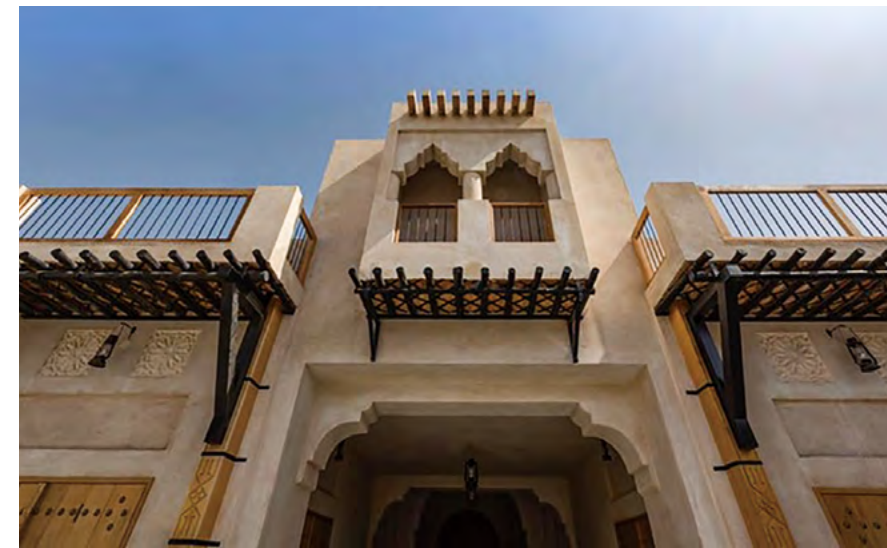
시장에는 수공예품과 민속공예품을 파는 가게들이 줄지어 있다. 이들 중에서 알아샤를 유명하게 만든 가장 중요한 수공예품들과 전통문화제품은 능숙함과



정교함, 그리고 독창성을 지닌 손자수(bisht) 직조이다. 이 손자수는 완전히 수작업으로 이루어진다. 이 외에도 일반 직조, 금세공, 카펫, 고리버들 세공, 가죽 산업뿐만 아니라 한 때 아랍 세계에서 알아샤를 수식했던 도자기 산업의 공예품들도 포함된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알아샤의 도자기 산업은 15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알아샤의 가장 중요한 고대 산업으로 여겨진다. “그라쉬 공장(Grash Factory)”은 가장 오래된 도자기 공장인데, 알아샤의 유명한 알쿠아라(Al-Qarah) 산 근처에 있다. 그 공장은 지역 주민들과 타 지역에서 온 관광객들이 모두 찾는 문화유산 관광의 랜드마크가 되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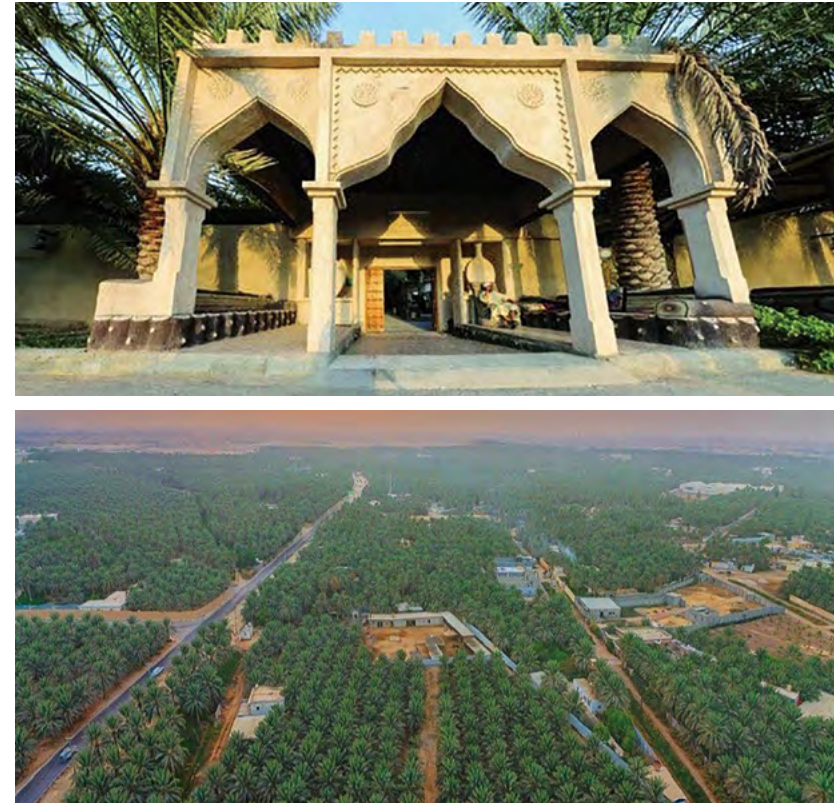
알아샤 지방정부의 대표적인 노력의 성과로 세계문화유산부서와 지역공동체 파트너십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알아샤 정부는 장인들에게 적합한 환경을 확보하고, 그들이 작품을 지속적으로 제작하고 홍보하도록 장려하며, 그 작품들의 중요성에 합당한 정도로 관광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 이와 같은 지원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알아샤 정부는 문화유산과 전통문화 보존을 위한 국가적 노력을 확대하고 이에 참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민간 기관들이 주도하는 장인 아카데미 운영에 있어 지역공동체 파트너십의 역할을 강조한다.

위에서 언급한 모든 노력들은 알아샤를 포함한 사우디 아라비아 왕국 도시들의 역사와 문화 유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왕국의 문화유산과 다양한 문화를 보존하려는 사우디 아라비아 왕국의 비전에서 출발한 것이다. 실제로 알아샤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하고 세계유산에 등재된 이후에, 연속해서 글로벌한 성과를 달성했다. 이 도시는 2019년 아랍 관광수도로 선정되었고, 그 결과



세계 최대의 야자수 오아시스로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다.

The team of Creative city in
Al-Ahsa Municipality